

## 화학기업, 구미상공대상 대거 수상

LG실트론의 이희국 대표가 구미상공대상에 선정됐다.

경상북도 구미상공회의소는 <제22회 구미상공대상> 수상자로 4개 부문 5명을 선정했다고 12월20일 발표했다.

LG실트론 이희국 대표이사는 공급처를 다변화해 매출 1조원을 달성한 성과로 경영대상 수상자에 선정됐으며, 도레이(Toray)첨단소재 이승훈 상무는 지속적인 투자로 6600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해 무역대상 수상자에 뽑혔다.

웅진케미칼 윤병섭 상무는 초내열성 극한섬유를 개발하는 등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해 기술대상 대기업부문 수상자에 선정됐고, 월텍스 배종식 대표이사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장비부품을 개발한 공로로 기술대상 중소기업부문 수상자로 확정됐다.

대영자재백화점 이기웅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자재유통분야에 백화점 운영방식을 도입해 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개발 및 유통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20>